■민족문화연구 제107호(2025.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99-129.
http://doi.org/10.17948/kcs.2025..107.099

虛像 속의 理想 찾기*
—조선후기 평양 箕子井田에 관한 인식 변화—

엄기석(嚴基碩)**

목 차

1. 머리말
2. 虛像의 現像化 : 箕子井田의 등장과 '箕田遺制說'
3. 現像의 理想化 : 箕子井田 논의의 심화와 확대
4. 箕子井田에 관한 부정론의 제기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평양에 있다고 알려진, 이른바 기자정전(箕子井田)에 관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논의 내용과 변화 과정을 살펴본 연구이다. 조선전기부터 평양에 있다고 전해진 정전은 고대의 이상 제도로 여겨지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 실체적 내용은 없었으며 정전의 흔적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사실상 허상적 존재였다. 다만 16세기 이래 기자 존숭 의식이 강화되면서 차츰 내용과 모습을 더해갔고, 한백겸의 '기전유제설'과 '기전도'가 제시되면서 실제 존재하는 현상의 제도가 되었다. 이후 평양의 정전은 기자가 만든 토지 구획으로 그 구체성을 더해갔고,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명청교체기 이후 조선의 중화문명 계승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기전은 단순히 고대 성인이 남긴 제도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중화문명을 보여주는 이상적 대상으로 진화하였다. 이후 기전의 이해가 심화되며 기전유제설 내용 일부가 부인되었으나 이상향의 입지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19세기 전후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9239)
**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로 기자 존숭 의식이 다소 얕아지고 기전에 대한 고증이 심화됨에 따라 기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처럼 조선후기 기전의 논의는 시대적 인식이 투영되는 대상이었으며, 당대의 사조를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주제어: 기자정전(箕子井田), 기전(箕田), 정전(井田), 기자(箕子), 평양(平壤), 중화(中華)

1. 머리말

기자(箕子)는 은나라 태사(太師)로 알려진 인물이다. 중국 사서인 『상서대전(尙書大傳)』을 살펴보면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 정벌 이후 감옥에 갇혀 있던 기자를 풀어주는데, 이후 기자는 동쪽의 조선으로 피하였다고 전해진다.[1]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은 후대에 전해져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기자가 조선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예의·농사·양잠·직조, 정전(井田)과 팔조(八條)의 제도를 알려주었다고 믿었다. 이를 통해 조선이 중화의 문명을 일찍부터 전달받은 국가가 될 수 있었음을 칭송하였다.[2]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기자는 단순히 전설 속의 인물에 그치지 않았고 실재했던 인물이었으며, 문명을 전달해 준 주체로써 지속적인 탐구의 대상이었다.[3] 이러한 현실 속 기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 기자가 도읍했다고 알려진 평양에 남아있는 기자의 유적이었다.

조선시대 평양에는 기자와 관련된 유적과 시설이 조성되어 있었다. 기자 시대부터 존속되었다고 여겨지던 기자묘(箕子墓)를 비롯하여 기자궁(箕子宮)·기자정(箕子井) 등이 있었다. 여기에 기자를 모신 사우가 후대에 만들어졌

1) 『尙書大傳』 권2, 周書 洪範五行傳.
2) 李珥, 『栗谷全書』 권14, 雜著, 「箕子實記」.
3) 조선시대 기자 담론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로는 박광용,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高麗부터 韓末까지의 史書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 서울대 국사학과, 1980; 한영우, 「高麗-朝鮮 前期의 箕子認識」, 『한국문화』 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2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중국 관계에서 기자의 존재를 활용하는 양상에 관한 김경태, 「임진왜란 시기 朝鮮·明관계와 箕子인식의 양상」, 『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2016 ; 이명제, 「조선후기 기자의 위상 변화와 조·청 외교에서의 활용 양상」, 『국학연구』 51, 한국국학진흥원, 2023 등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다.[4] 이러한 공간 조성은 기자를 기억하는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동시에 기자의 실존성을 부각하며 조선을 이적과는 다른 문명, 일찍부터 중화의 문화가 발현되던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기자 관련 공간 중에서도 유교 사회의 이상을 담고 있는 대상으로, 지속적인 논의의 소재가 된 곳이 바로 기자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정전(井田), 즉 기자정전(箕子井田)[이하 기전(箕田)]이다.

기전은 평양 외성 안에 있던 정방형의 토지 구획을 가리켰다. 현재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평양의 모습을 담은 고지도에는 바둑판 형태의 토지 구분을 담은 경우가 있고, 「기성도(箕城圖)」라 불리었던 평양성을 그린 병풍에도 외성에 조성된 정전의 모습이 완연히 표현되어 있다.[5]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토지 구획을 보고 삼대(三代)의 이상적 토지제도였던 정전을 떠올렸다. 여기에 평양이 갖는 기자라는 소재가 더해져 기자가 만든 정전이라는 논지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두고 지속적인 논쟁이 전개되었다.

기전에 관한 다양한 논의만큼이나 그동안 관련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우선 평양의 문화적 요소를 설명하며 기전을 언급한 연구가 있다.[6] 해당 연구에서는 흔적에 불과한 토지 구획이 기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기전 논의가 갖는 허구, 지역적인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기전에 관한 개별 학자들의 논의를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서명응・안정복・이익의 기자 인식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기전 관련 서술을 분석하여 제시한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학자들마다 기전을 인지하는 방법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7] 최근에는 다양한 기전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그 추이를 분석한

---

4) 최근 공간사(Spatial History)와 관련된 연구가 주목받으면서 조선시대 평양에 만들어진 기자 관련 장소의 조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다수 제시되었다. 이은주, 「만들어진 유적, 평양의 로컬리티」, 『돈암어문학』 34, 돈암어문학회, 2018; 김창수, 「조선후기 기자의 위상과 평양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89, 2022; 신주엽, 「17-18세기 箕子 유적의 정비와 기자 인식」, 『대구사학』 148, 대구사학회, 2022; 이남옥, 「조선시대 箕子 추숭의 과정과 그 의미」, 『한국서원학보』 16, 한국서원학회, 2023.

5) 박정애, 「18-19세기 箕城圖 屛風연구」, 『고문화』 7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9 참고.

6) 오수창, 『조선시대 정치, 틀과 사람들』, 한림대, 2010.

7) 김문식, 「18세기 후반 徐命膺의 箕子 認識」, 『우송조동걸선생 정년기념논총 한국사학사연구』 I, 나남출판, 1997; 「18세기 후반 順庵 安鼎福의 箕子 인식」, 『한국실학연구』 2, 한국실학학회,

연구도 제시되었다. 먼저 기전의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성호학파의 기전 관련 서술을 종합한 연구가 있는데 같은 학파라고 하더라도 기전에 관한 논점이 상이하였음을 밝혔다.[8]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통의 기전 논의를 종합하여서 그 추이와 활용 양상을 설명한 연구도 진행되었다.[9] 이 외에도 근기 남인의 토지개혁론과 기전 담론을 연관 지어, 특히 학자별로 한백겸의 기전 유제설의 수용 여부를 종합한 경우도 있었다.[10] 마지막으로 『기전고(箕田攷)』의 간행 경위와 함께 당파별 기전 논의 특징을 설명한 연구가 제시되었다.[11] 이처럼 기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다만 대체로 학자들마다 서술한 내용을 제시만 하거나, 복수의 논의를 종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하고 장기간 전개된 논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를 만드는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소 불분명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조선시대 평양의 기전을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최대한 종합하고, 시기별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해당 논지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대체로 기전의 논의는 허상 정도로 불분명하게 인지되었던 기전이 현상의 제도로 진화하고, 현상의 기전이 논지를 더하여 이상적 제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 전개 과정을 다양한 계통의 기전 관련 서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0; 「星湖 李瀷의 箕子 인식」, 『퇴계학과 한국문화』 3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3; 기전 자체를 다루었다고 하기보다는 이익의 전제론적 측면에서 기전이 갖는 성격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신항수, 『李瀷(1681-1763)의 經·史解釋과 現實認識硏究』,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8) 엄기석, 「星湖學派의 箕子井田 인식」, 『성호학보』 18, 성호학회, 2016.

9) 변은미, 「箕田 논의에 대한 고찰」, 『고전과 해석』 41,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3.

10) 김영준, 「조선시대 箕子談論과 社會改革論 관련 양상」,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11) 이남옥, 「『箕田攷』와 조선후기 箕子 遺田에 대한 논의」, 『조선시대사학보』 109, 조선시대사학회, 2024.

2. 虛像의 現像化 : 箕子井田의 등장과 '箕田遺制說'

1) 箕子 논의의 심화와 箕子井田의 발견

기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려사(高麗史)』이다.[12] 『고려사』 지리지에는 평양의 고성(古城)에 정전으로 구획된 토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13] 이를 통하여 적어도 『고려사』가 편찬된 조선 초기부터 평양의 정전, 즉 기전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30년(세종 12)에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작성한 기자묘(箕子廟)의 비문에는 기자가 정전의 제도를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4] 이후 기전에 대한 기록은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나타난다. 「평양부(平壤府)」에는 정전이 평양의 외성 안에 있으며 기자가 구획하였고 그 형태가 완연하게 남아있음을 설명하였다.[15] 같은 시기 기전 관련 기록은 조선을 왕래하던 사신과 그들을 접대한 조선 관리들의 시를 통해서도 등장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고대의 제도인 정전이 평양에 남아있음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적어도 15세기 무렵부터 평양의 방형 구획을 기자가 남긴 정전이었다고 인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16] 다만 서술은 구획에 대한 인상 정도이

12) 조선전기까지 기전의 실체에 대한 서술은 다음 두 논문을 참고하였다. 오수창, 앞의 논문, 2010; 엄기석, 앞의 논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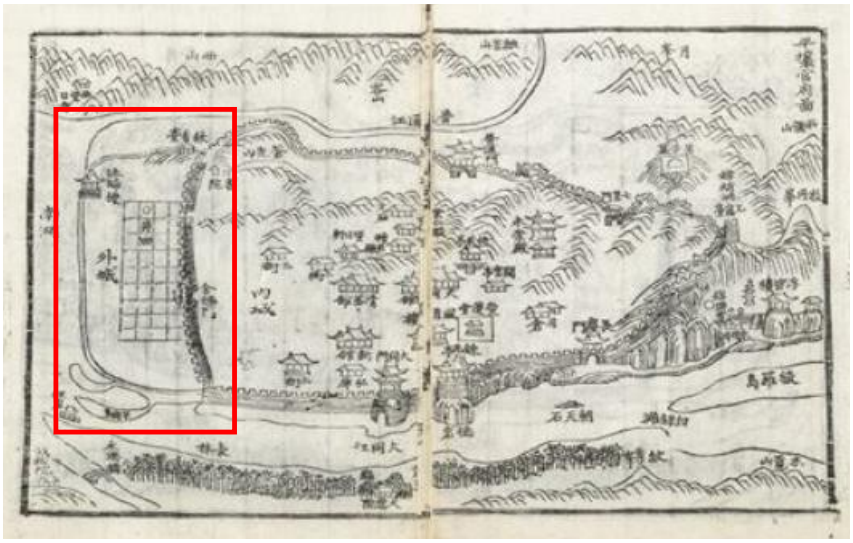
13) 『高麗史』 권58, 地理 3, 「西京留守官平壤府」.

1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1, 「平壤府」.

1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1, 「平壤府」; 이 시기 기전 서술의 등장은 金宗直(1431-1492)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士林派'의 역사 인식과 관련 있다고 본 연구가 있다. 특히 기전에 관한 내용은 김종직 등에 의하여 수정 간행된 『東國輿地勝覽』의 단계에서부터 수록되었는데, 이는 기자를 성현으로 숭앙하였던 사림파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오수창, 앞의 논문, 2002, 832-833면; 박광용,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高麗부터 韓末까지의 史書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 서울대 국사학과, 1980, 262-263면 참고.

16) 평양 외성에 나타나는 방형의 구획이 언제부터 나타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평양 외성에 대한 근대적 조사가 시작되었던 1920년대에 일본 학자 關野貞에 의하여 고구려의 도시 유적임이 밝혀졌다. 최근에 발표된 고구려 장안성의 공간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도 외성의 방형 구획이 고구려 때에 조성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외성의 격자형 구조를 복원하고, 이곳이 거주지로서 기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기경량, 『高句麗 王都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208-230면.

지 이를 제도적으로 밝힌다거나 심도 있게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어디까지나 기전은 '그랬다고 하더라' 정도의 '허상'이었을 뿐이지 실재하는 고대의 제도였다고 인지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차츰 기전에 관한 언급이 더해지며 그 실제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윤두수(尹斗壽, 1533-1601)가 1590년(선조 23)에 편찬한 『평양지(平壤誌)』에는 아래와 같은 「평양관부도(平壤官府圖)」가 수록되었다.



〈그림 1〉 윤두수(尹斗壽)의 「평양관부도(平壤官府圖)」(출전 : 『평양지(平壤志)』)

위의 「평양관부도」는 평양성 내외의 주요 시설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왼편 위치한 평양 외성에는 바둑판 모양의 기전을 형상화하였다. 『평양지』에는 기전에 관한 서술도 있는데, 〈원전〉에 해당하는 권2의 「고적(古蹟)」에는 기전이 외성에 있으며, 기자가 구획하였는데 그 유적이 완연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17] 또한 「토전(土田)」에서는 기전의 땅이 비옥하고 삼과 무를 심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언급하였으며,[18] 권5의 「잡지(雜志)」에는 1585년(선조 18)에 평양부 서윤 김민선(金敏善, 1542-1592)이 기전의 흐트러진 경계를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다.[19] 이 밖에 윤두수가 『평양지』 이전

17) 尹斗壽, 『平壤志』 권2, 「古蹟」.
18) 尹斗壽, 『平壤志』 권2, 「土田」.

에 편찬한 『기자지(箕子志)』를 통해서도 기전에 관한 서술을 하였다. 다만 그 내용은 『평양지』와 동일하게 나타나며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묘사는 없었다.

15세기 무렵 시작된 기전에 관한 인지는 16세기 후반까지 그 논의를 더해갔다. 다만 이 시기 기전은 짧은 언급만 있을 뿐 그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시도는 없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전의 모습이 '허상'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기자에 대한 존숭 의식이 강해지고, 기전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 조치가 시행되면서 기전의 존재가 점차 부각되었다. 그리고 기전의 존재가 점차 구체화 될수록 하나의 풍경 정도로만 인식되었던 기전이 현상의 대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箕田遺制說'의 제기와 확산

윤두수의 『기자지』가 간행되면서 기자에 관한 서술이 한층 더 주목받았다. 곧이어 윤두수 논의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이(李珥, 1536-1584)가 『기자실기(箕子實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20] 여기에 기자의 논의를 더욱 증폭시킨 것은 임진왜란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주도하에 평양에 있던 기자 관련 유적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이후에도 평양의 기자 사당과 기자묘가 재건되었고, 국가 차원의 제사도 설행되었다. 이와 같은 기자 존숭 의식의 강화 작업은 광해군 연간에도 지속되었다.[21]

기자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평양의 기전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최립(崔岦, 1539-1612)은 직접 본인이 기전을 살펴보고 몇 가지 의문을 남겼다. 그가 쓴 『간이집(簡易集)』에 수록된 「洪範學記」에 보면 기전을 직접 살펴보고 "지금 기자의 남은 흔적을 살펴보면 정전의 구획이 완연히 남아있다. 하지만 일이 주나라 사람과 같지 않고, 제도 역시 전부 동일하지 않다."[22]고 하였다. 최립은 기전을 관찰하며 기전의 구획이 일반적인

19) 尹斗壽, 『平壤志』 권5, 「雜志」.
20) 李珥, 『栗谷全書』 권14, 雜著, 「箕子實記」.
21) 김경태, 앞의 글, 2016, 171-175면.
22) 崔岦, 『簡易集』 권9, 稀年錄, 「洪範學記」.

정(井)자 형태의 정전법과 다른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최립은 기자가 동래하던 당시 조선이 혼란한 상태였으므로 바로 중화의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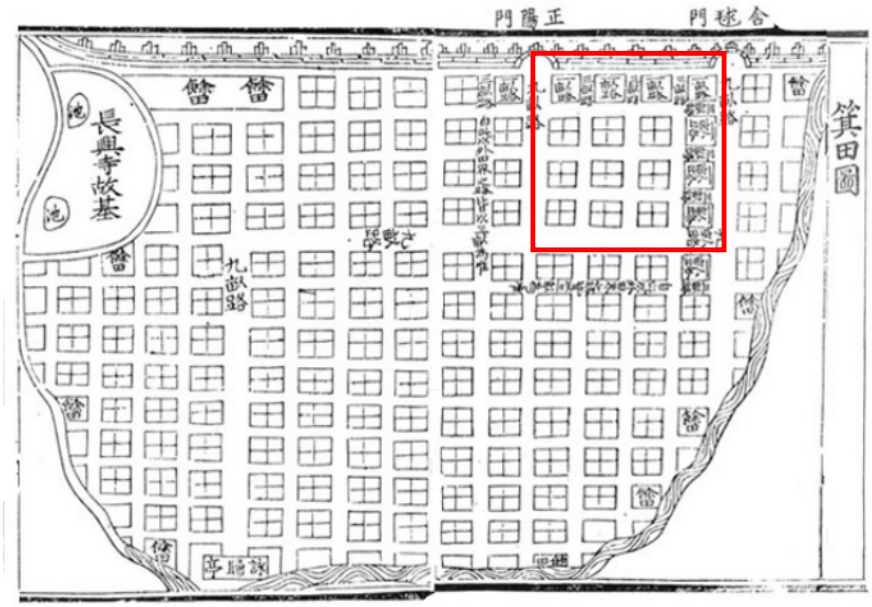
이러한 최립의 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기전의 인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논의가 비슷한 시기 제기되었다. 바로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의 '기전유제설(箕田遺制說)'이다. 1607년(선조 40) 한백겸은 동생인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이 평안감사로 부임하자, 평양에 유람을 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외성에 있는 기전을 직접 관찰하고 그 모습을 기록,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4]

① 구획은 '전(田)'자 형태, 하나의 전(田)에는 4개의 구(區)가 있음, 하나의 구당 넓이는 70묘(畝)
② 함구문(含毬門)과 정양문(正陽門) 앞으로 나 있는 대로 사이에 '16전 = 64구'의 형태가 가장 분명하게 남아있음
③ 『맹자(孟子)』에 은나라는 70묘를 조법으로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넓이가 70묘인 기전은 은나라 제도라고 할 수 있음
④ 기자는 은나라 사람이므로 본국의 제도를 계승
⑤ 1구의 경계는 1묘 넓이의 길, 1전의 경계는 3묘 넓이의 길
⑥ 9묘 넓이의 길은 16전 = 64구 = 1전(甸)을 구획
⑦ 여사와 공전의 제도는 상고할 수 없음
⑧ 주자(朱子)가 구혁을 허무는 것이 번잡하다고 하였는데, 70묘에서 100묘의 구혁을 만드는 일은 '인(仁)'을 베푸는 정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음
⑨ 일찍이 성리학의 현인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한 것은 애석한 일이므로 기전의 제도를 기록함

기존의 기전에 대한 언급이 감상 정도에 그쳤던 점에 비하여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은 기전의 제도적인 면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백겸은 기전의 모습을 그림으로도 남겨놓았는데, 아래 〈그림 2〉의 「기전도(箕田圖)」이다.

---

23) 崔岦, 『簡易集』 권9, 「洪範學記」.
24) 韓百謙, 『久菴遺稿』 上, 「箕田遺制說」 참고.



〈그림 2〉 한백겸(韓百謙)의 기전도(箕田圖)(출전 : 『구암유고(久菴遺稿)』)

한백겸의 기전에 대한 설명 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먼저 기존의 정전제 논의에서는 토지 구획의 기준을 '정(井)'자 형태로 이해한 반면, 한백겸이 이해한 기전은 '전(田)'자로 토지가 구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전 한 구역의 크기가 70묘라고 하였는데,[25] 이는 『맹자』에 서술되어 있는 "은나라의 경우 70묘를 조법으로 삼는다."라는[26] 점과 상통하며, 결과적으로 기전은 은나라의 제도이며 기자가 은나라의 태사이므로 본국의 제도를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기전이 은나라의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기전이라는 토지제도가 단순히 정방형 형태의 토지 구획을 갖추었다는 점에 국한되지 않고 실

25) 실제 70묘를 현재 단위로 계산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1묘는 100보×100보이고, 1보는 6척이다. 토지를 측량하는 데에는 보통 周尺이 사용되는데 조선후기 주척 도본의 길이는 대략 20㎝이다(이종봉, 「朝鮮後期 度量衡制 硏究」, 『역사와 경계』 53, 부산경남사학회, 2004, 53-54면). 그렇다면 1보는 120㎝이고, 100보는 120m이므로 1묘의 크기는 14,400㎡이다. 결론적으로 70묘는 1,008,000㎡(약 30만평)정도 이다. 그런데 최근의 고구려의 외성에 있는 구획의 크기를 측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백겸이 설명한 1구의 길이는 대략 88.54m라고 하였다(기경량, 앞의 논문, 2017, 228-230면). 주척 단위의 차이와 실제 측량을 하지 못한 점에서 따른 문제이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백겸 이후 李森煥과 朴趾源이 모두 직접 측량하였을 때 1구의 크기가 70묘라고 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관념적 수치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6) 『孟子』, 「滕文公章句」 上.

재하는 과거의 토지제도라는 역사성을 부여하였다는 의미도 있다.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은 이후 기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기전에 관심을 보이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한백겸이 주장한 '기전=은대유제'라는 논리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실제 「기전도」의 발문을 쓴 유근(柳根, 1549-1627)은 한백겸의 주장대로 기전이 은나라의 제도이며, 이를 한백겸이 밝힌 것이 다행한 일이라고 서술하였다. 특히 그는 주자가 「기전도」를 보았다면 정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허성(許筬, 1548-1612) 역시 기전은 기자가 직접 전해준 은나라의 제도라고 하였다. 또한 허성은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에서 상세하게 밝히지 못한 과세의 대상인 공전(公田)과 임시 거주지인 여사(廬舍)에 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도 하였다.[27]

기전이 은대 유제였다는 한백겸 논의는 빠르게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수광(李睟光, 1536-1628)은 기전이 은나라의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이를 밝힌 한백겸의 일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하였다.[28] 또한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을 그의 저서인 『반계수록(磻溪隨錄)』에 인용하며, 기전은 기자가 직접 제정한 전제이고 맹자가 말한 은나라의 70묘와 부합된다고 설명하였다.[29] 여기에 더해 유형원은 한백겸이 주장한 전(田)자 형태의 토지 구획에 착안하여 정전제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한 공전제(公田制)를 고안하기도 하였다.[30]

이상 한백겸 논의의 영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한백겸의 주장인 이른바 '기전유제설'이 정설처럼 자리 잡았고, 이는 18세기까지도 지

---

27) 허성의 '기전유제설'에 대한 공전과 여사의 보충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전의 전형이라고 하는 64구의 기전을 8구씩 묶어서 그 중에 하나를 공전으로 삼고, 공전 1구에 한 가구당 3묘의 여사를 편성하면 3묘×7가구 즉, 21묘가 여사에 쓰이므로 실제 경작하는 공전은 49묘가 된다. 그렇다면 한 가구가 받는 사전 70묘, 담당하는 공전은 7묘가 되므로 什一稅의 이념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許筬, 『岳麓集』 권2, 「箕田圖說後語」.

28) 李睟光, 『芝峯類說』 권2, 「田」.

29) 柳馨遠, 『磻溪隧錄』 권5, 「田制攷說」 上.

30)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公田制論과 그 이념적 지향」,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454면 참고.

속되었다. 또 하나는 한백겸 논의를 기점으로 평양의 기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기전유제설'을 중심으로 기전에 대한 상세한 해석과 의미 부여의 시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증가는 한백겸 논의 이전 '허상'에 불과하였던 기전에 구체성을 부여하여 '현상'으로 진화시켰다. 이러한 현상화는 17-18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자에 대한 존숭 의식의 강화와 함께 기전을 이상향으로 인지하려는 모습까지도 만들어 내었다.

3. 現像의 理想化 : 箕子井田 논의의 심화와 확대

1) '箕田遺制說'의 지속과 이상향으로 전환

17세기 중반 이후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조선 지식인들에게는 과제가 생겨났다. 기존 중화문화를 보존·지탱하고 있던 명나라가 사라지면서 중화의 부재를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다. 조선 지식인들의 선택은 스스로 중화가 되어 이를 보존하는 것이었다.[31] 하지만 관념적 중화 질서를 구축하기에 이와 대별되는 이적으로 상정할 만한 존재가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조선의 내적 중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지식인들은 기자의 존재를 부각하면서 관련 저술을 만들어냈고, 기자의 후예를 찾거나 역사적 정통성을 구축해 나갔다. 이는 중화적 정체성을 과거의 존재로부터 계보적으로 설명하면서 조선의 중화성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왔다는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32] 결과적으로 기자 담론의 강화 작업은 기전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기전에 보다 심도 있는 의미 부여를 불러왔다.

우리나라 평양에는 '기자전(箕子田)'의 터가 남아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전

31) 최근 조선후기 '중화' 관념에 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나종현, 「중화의 맥락 찾기, 그 성과와 과제」, 『역사학보』 264, 역사학회, 2024 참고.
32) 허태용,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변동과 조선왕조의 정치·사상적 대응」, 『역사학보』 221, 역사학회, 2014, 51-53면.

> 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그 밭두둑의 요철을 보고서는 그 제도를 알 수가 없다. 선조 연간에 참의 한백겸이 그것을 가서 보고는 비로소 "은나라 사람은 70묘로 조법을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유제임을 밝혔다. 기자는 비록 주나라의 봉작을 받았지만, 예와 법은 은나라를 따랐기 때문에 주나라의 정전제와 다른 것이었다. (…) 남송은 강남에 붙어 있었으므로 은·주나라의 오랜 터가 이미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물며 기자의 봉토는 한쪽 구석의 오래된 경작지인데 부자(夫子)께서 분명 듣지 못하셨을 것이다. 당시에 만약 이 그림[기전도]을 부자께서 보셨다면 반드시 이것에 의하여 추구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은·주나라가 망한지 지금 이미 천여 년이다. 비록 중국 문물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도 그 자취가 완전히 사라져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밭[기전]은 완연하게 홀로 바다 밖 변두리에 있다. 앞으로 중국에 왕이 나타나면 반드시 와서 이 법을 취해야 한다.33)

위의 내용은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기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다. 그는 앞서서 제기된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을 설명하며 기전이 은나라의 유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34) 그리고 기전의 경우 중국에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부자(夫子), 즉 주희가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음을 아쉬워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왕자(王者)가 나타난다면 삼대의 유제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평양 기전의 제도를 배워야 함을 주장하였다.35) 이 외에 이이명은 「만록(漫錄)」의 말미에 북송 때에 고려에서 육경고문(六經古文)을 바친 적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고려 사람이 기전을 언급하지 않은 까닭에 중국에서 기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만약 알았더라면 경전의 집주(集註)에 실려 전해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36)

이이명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 강재항(姜再恒, 1689-1756) 역시 평양의

---

33) 李頤命, 『疎齋集』 권12, 雜著, 「漫錄」, "我國平壤有箕子田遺址 國人號爲井田 但見其溝塍凸凹 莫識其制 宣祖朝 參議韓佺謙往見之 始以爲殷人七十而助 此其遺制 箕子雖受周封 禮與法 遵殷之故 與周井異 … 南宋寄在江南 殷周舊墟 已不可得見 況箕封一隅之舊田 夫子必無聞矣 當時有以若此圖者示夫子 必有據此而追究者也 殷周之亡 今已千有餘年 雖中國文物之所在 其跡蕩然 無一存者 此田能宛然獨存於海外偏域 異日中國有王者作 必來取法 …"

34) 이이명이 기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경위는 『疎齋集』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전도」가 수록된 『구암유고』의 판본이 원주 鴒原山城에 있는데 이를 본인이 직접 살펴보았다고 하였다. 李頤命, 『疎齋集』 권12, 雜著, 「漫錄」.

35) 李頤命, 『疎齋集』 권12, 雜著, 「漫錄」.

36) 李頤命, 『疎齋集』 권12, 雜著, 「漫錄」.

기전에 대하여 삼대의 유제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마찬가지로 한백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전이 은대의 유제임을 인정하였다.

> 평양에 있는 기자의 옛터에는 정전의 흔적이 있다. 역대로 기자의 유제라고 전해져 온다. 무너지게 하지 않아서 지금도 밭의 경계가 정연하게 남아있다. 구암 한백겸이 그 제도를 그림으로 그리고 서술하였다. 또 설명을 만들어서 세상에 전하였다. 하택(荷澤) 김시양(金時讓)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맹자를 인용하여 증명하면서 끝에서는 후세의 호사가들이 한 것이지, 기자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 (…)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자가 옛 제도를 잃으면 관학(官學)이 사방의 오랑캐에게 있다고 하였는데 마치 염자(剡子)의 서관(叙官)이나 서융(西戎)의 반감(磐鑑)이 모두 이것이다. 일본에는 죽서에 쓰인 고문(古文)의 시서가 있는데 전해져 오기를 서불(徐市)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지금도 전해지고 보존 되어 아무렇지도 않다는 구양공의 말에는 속임이 없다고 한다. 서불의 죽간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기자 정전의 옛 흔적이 괴이할 것은 없다. 이 그림을 주자에게 보이고 맹자를 증명하지 못해 한스럽고, 당시에 태어나 밭을 받아 당대의 농부가 되지 못함이 아쉽다.37)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재항은 이전에 김시양(金時讓, 1581-1643)이 제기하였던 일종의 '기전불신론(箕田不信論)'을 반박하였다. 김시양은 기전이 후대의 이야기를 지어내기 좋아하는 이들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지 기자가 만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강재항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그는 진나라 때 불로장생약을 구하려고 파견된 서불(徐市)의 죽서가 일본에 남아 있다고 한 점에서 착안하여 기자의 정전도 남아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기전의 모습을 주자에게 보여 『맹자』를 상세하게 밝히지 못한 점이 한스러우며, 기자의 치세 기간에 태어나 당시의 농부가 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도 토로하였다.38)

이처럼 이이명과 강재항은 한백겸의 주장을 수용하고서 기전이 은대의 제

---

37) 姜再恒, 『立齋遺稿』 권13, 跋, 「題箕田圖後」, "平壤箕子之墟也 有井田之址 歷代相傳以爲箕子之遺制 禁之不令壞 至今阡陌猶井井焉 韓久庵百謙氏爲圖畫其制 且作說以傳於世 金荷潭時讓不之信 引孟子以證之 而末乃曰後世好事者之所爲 非箕子之所爲 此說似矣而猶未也 … 孔子曰 天子失官 學在四夷 若剡子之叙官 西戎之磐鑑皆是也 日本有竹書古文詩書 相傳謂徐市所携來 至今傳守無恙 歐陽公之言不誣云 徐市之竹簡尙在 則箕子之井田之有遺址 無足恠者 恨不以此圖就正於朱子 以證孟子 且恨不生於其時 受一廛而爲之氓也"

38) 姜再恒, 『立齋遺稿』 권13, 跋, 「題箕田圖後」.

도였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기전이 단순히 은대의 유제로만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 삼대의 제도로써 중국이 아닌 조선에 남아있음을 자랑스러워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주희와 같은 성인에게 보이지 못함도 아쉬워하였다. 이는 기존 한백겸의 논의에서 더 심화한 형태로 기전을 평양에 있는 '현상적' 제도를 넘어 중화(中華)의 '이상적' 존재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기전에 대한 인식이 당파와 학파를 초월하여 수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이명은 영조 초반 노론을 대표하는 대신 중 한 명이며, 강재항은 소론의 영수인 윤증(尹拯, 1629-1714)의 문인이었다. 또한 앞서서 언급하였던 유형원은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이처럼 평양의 기전이 삼대의 유제라는 점에서는 당파를 초월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39] 동시에 이들은 평양의 기전이 중국에도 없는 삼대의 유제임에도 동의하고 있다.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을 전후로 현상의 제도가 된 기전은 지속적인 기자존숭 의식의 강화, 소중화주의의 형성과 심화를 바탕으로 삼대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이상향으로서 기전에 대한 이해는 당파를 넘어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였다. 이후 기전을 이상적 제도로 보는 경향은 이어진다. 다만 기전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기존 '기전유제설'을 재해석하는 시도가 생겨났고, 이는 삼대의 이상이라는 성격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

39) 기자에 관한 관심은 당색을 넘어 보편적인 것이었다. 다만 소론과 남인 계열 인물들의 경우 기자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노론도 기자를 조선 문명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 주자성리학의 입장에 국한된 것이었다. 소론 계열은 이를 넘어서 주자학을 강조하기 이전에 조선은 기자가 봉해진 나라이며, 조선의 백성은 기자의 후예임을 강조하였다. 조성산, 「조선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역사학보』 202, 역사학회, 2009, 61-62면.

2) 箕子井田 논의 확대와 이상적 모습의 구체화

17-18세기 기전이 삼대 제도라는 점은 조선의 지식인층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선후기 기전에 대한 이해 방식이 여기에서 멈춘 것은 아니었다. 기전이 갖는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기존 한백겸이 제기한 '기전유제설'의 기본적 이해 방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다음은 이익(李瀷, 1681-1763)이 제기한 기전에 대한 설명이다.

> 내가 그림[기전도]을 깊이 연구하였는데 두 성문 사이에 가로세로 4개의 전은 지세로 인하여 우연하게 그러한 것이지 역도(易圖)에서 의미를 취한 것은 아니다. 비탈지거나 구석진 것을 제외한 토지가 많게는 150여 곳이 되는데 모두 4×4로 이루어진 배열 체계가 아니다. 또한 정양문부터의 9묘 길은 꺾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6개의 전을 거치고, 다시 꺾으면 9개의 전을 거치는데 바로 영귀정에 다다른다. 이 밖에 전(田) 사이의 길은 모두 3묘 길에 불과한데, 어찌 두 성문의 큰 길 사이에 우연히 만들어진 제도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부합하다고 말하는가?[40]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익의 기전 이해 방식 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기존 한백겸의 기전 해석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41] 특히 이익은 위와 같이 한백겸이 주장하였던 전형적인 형태의 기전 64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전이 9묘 넓이의 길 사이에 64구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형으로 여긴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실제로 두 성문 사이에 있는 64구는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한백겸이 주장한 전(田)자 형태의 구획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해석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이익의 독특한 정전제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맹자』에는 정전제를 설명하면서 "하후씨는 50으로 공법을 시행하고, 은나라 사람은 70을 조법으로 삼으며, 주나라 사람은 100묘로 철법을 삼으니 그 실체는 모두 10분의 1세이다."라고[42]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익은 기

---

40) 李瀷, 『星湖全集』 권56, 「書韓久庵箕田圖說」, "愚按圖尋究 其兩門之間 橫四豎四者 乃偶因地勢而然者 非取義易圖也 除尖斜欹側外 其田多至百五十餘所 皆無四四成列之制 又自正陽門九畝之路 折而右 歷六田 又折而歷九田 直抵詠歸亭 此外田間之路 皆不過三畝 豈可因兩門大路之間 偶成之制 而一例輳合說乎"

41) 이익의 기전 해석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엄기석, 앞의 논문, 2016, 86-91면 참고.

존의 해석과 달리 하나라의 50과 은나라의 70은 넓이가 아닌 한 변의 길이로 보았다. 그리고 하나라에서 지급한 토지의 넓이는 50×50(보)로 25묘가 되고, 은나라는 70×70(보)의 50묘(≒49묘), 주나라는 100×100(보)로 100묘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곧 100×100(보)의 100묘 넓이를 가진 田자 형태의 토지를 하나라에서는 1구를 주고, 은나라에서는 2구(50×100(보)=50묘), 주나라는 4구를 온전히 주기 때문에 주희의 해석과 같이 정전제의 변천이 밭이랑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정전제에 대한 해석이었다.[43]

이익은 본인의 독창적인 정전제 해석을 바탕으로 기전은 70묘가 아닌 한 변의 길이가 70보인 50묘의 토지라고 하였다. 다만 기전이 직사각형 형태인 은나라 토지 구획과 다른 이유는 기자가 동래하였을 때 전제가 되는 하나라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70보씩으로 구획한 것이라고 하였다.[44] 이외에도 이익은 한백겸이 주장한 4정 1읍·4읍 1구·4구 1전이 되는 구획의 단위에 대하여 실제로 『주례』의 내용에서는 1정 9부·4정 1읍이므로 1읍은 36구가 되는데, 이는 기전의 64구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45]

한백겸과 다른 기전의 이해 방식은 서명응(徐命膺, 1716-1787)에게서도 나타난다. 서명응은 1776년(영조 52)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평양의 기자 관련 유적에 주목하여 이를 정비하는 사업을 펼쳤다. 또한 당시 기자와 관련된 기록을 모아 『기자외기(箕子外記)』를 간행하였으며,[46] 후에는 이를 수정한 『주사(疇史)』를 편찬하기도 하였다.[47] 그는 이러한 역사서를 편찬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자의 법과 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핵심 사항 중 하나가 정전제였다.[48] 그리고 그가 주목

---

42) 『孟子』, 「滕文公章句」 上.
43) 신항수, 앞의 논문, 2002, 89-90면 참고.
44) 李瀷, 『星湖全集』 권56, 「書韓久庵箕田圖說」.
45) 李瀷, 『星湖全集』 권56, 「書韓久庵箕田圖說」.
46) 서명응은 평안감사 재임 시절에는 『기자외기』를 간행하였고, 수어사로 근무할 때는 남한산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南漢誌』를 편찬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근무지의 풍속과 역사에 관심을 갖고 관련 서적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김문식, 「徐命膺의 생애와 규장각 활동」, 『정신문화연구』 75,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56면.
47) 서명응의 『箕子外記』와 『疇史』의 편찬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김문식, 앞의 논문, 1997, 326-333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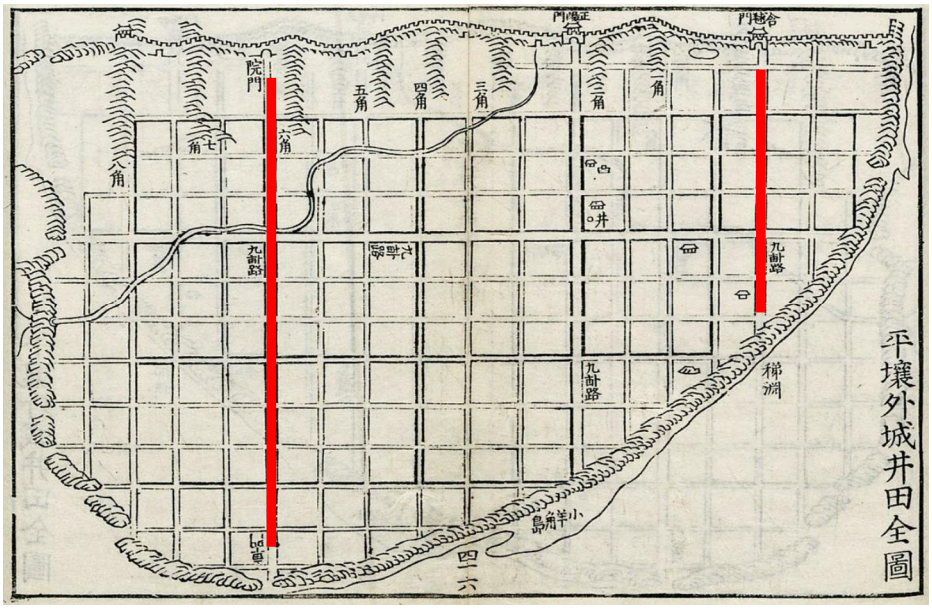
한 정전제가 기전이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 평양의 중성 내천부와 외성의 외천·흥토 두 부에는 기자정전의 흔적이 남아있다. (…) 중앙에는 정(井)자 형태를 이룬 것은 12정이 있고, 정 밖에서 구(區)자 형태를 이루었지만 정자가 되지 못한 것이 30구가 있다. 구 밖에서 여전(餘田)을 이루었지만 구의 형태를 이루지 못한 것은 21구가 있다. 백성들의 거주지는 지금도 여전이라고 한다.[49]

서명응은 평양의 중성과 외성의 일부에 기전의 자취가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중성의 기전은 민가에 의하여 점유되어 사라졌고, 외성의 기전만이 경계가 분명하게 남아있다고 하였다. 아래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명응이 설명한 기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성의 기전은 동서 6리로 16행이 있고, 남북으로는 4리 13행이 구획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정(井, 9區)자 형태를 이룬 것은 12곳이 있고, 정(井)자 밖에 구(區)의 형태만을 보이는 것은 30곳, 구(區)의 형태도 이루지 못한 이른바 여전(餘田)은 21곳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때 구(區)는 부(夫)로 인식하여 구(區) 사이의 2-4척에 해당하는 경계를 『주례』에 나오는 '부간유수(夫間有遂)'에 따라서 수(遂)로 보았고, 9묘 넓이로 남북에 뻗은 길 2개와 동서에 걸친 길 1개를 '십부유구(十夫有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溝)라고 이해하였다[〈그림 3〉 참조]. 이는 곧 평양의 기전이 『주례』에 맞추어 조성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었다.[50]

---

48) 김문식, 앞의 논문, 1997, 339면.
49) 徐命膺, 『保晩齋集』 권9, 「井田說」, "平壤中城之內川 外城之外川興土二部 有箕子井田遺址 … 而中央成井形者爲十二井 井外成區而不成井者 又三十區 區外成餘田而不成區者 又二十一區 居民至今稱爲餘田 …"
50) 김문식, 앞의 논문, 1997, 341면.



〈그림 3〉 徐命膺의 「平壤外城井田全圖」(『箕子外記』)

그런데 이러한 서명응의 해석은 기존의 한백겸, 이익 등이 주장하였던 '기전=은대유제'라는 주장에 반대되는 논리이기도 하였다. 서명응의 독창적인 기전 해석은 다음 내용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 … 1구(區) 안에는 십(十)자 모양으로 구획을 나누었는데 저절로 전(田)자 모양이 된다. 알지 못하는 자가 쫓아서 말하기를 "전(田)형은 은나라 제도이고, 井형은 주나라 제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욱 옛 제도의 큰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주례』를 기본으로 하고, 『맹자』를 참고하여서 주자와 송나라 여러 선유(先儒)의 논리에 있는 것을 종합한다면 이 영향 아래에서 기자의 옛 제도를 거의 이해할 수 있다.[51]

서명응은 『주례』의 내용을 근본으로 하고, 『맹자』를 참고해서, 주자 이후 여러 유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기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주례』의 「수인(遂人)」에 나오는 '십부유구(十夫有溝)'와 「소사도(小司徒)」의 '구부위정(九夫爲井)'이라는 내용상의 모순을 기전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다시 위의 〈그림 3〉을 살펴보면 밑줄 친 부분

51) 徐命膺, 『保晩齋集』 권9, 「井田說」, "… 不知者從而爲之說曰 田形殷制 井形周制 此尤失古制之大者也 本之周禮 參之孟子 以會通於朱子及有宋諸先儒之論 則夫箕子古制庶有得於影響之間云"

의 9묘 넓이의 길 사이에 10개의 부(夫)가 위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례』에서 구(溝)를 단위로 한 것은 가로로 센 것이고, 정(井)을 단위로 센 것은 사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전에 대한 해석은 정전제가 요순으로부터 시작되어 하·은나라에 제도가 정비되고, 주나라 대에 완비되었다는 서명응의 정전제론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가 되었다.[52]

다음은 이삼환(李森煥, 1729-1813)의 기전 인식론이다. 이삼환 역시 1786년(정조 10)에 직접 평양의 기전을 살펴보고 이를 기록하였는데 아래는 관련 내용이다.

> 지금 전 사이의 1묘 길이 사라져 자취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을 경계하는 3묘의 길 역시도 찾을 수가 없으니 오직 그 중에 한 구역이 궁 앞의 3묘 길로 구별 되어 다행스럽게 바뀌지 않았다. 그 양쪽으로 또한 9묘의 큰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 시험 삼아 묘법으로 그것을 계산해보니 거의 70묘이고 남거나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은나라 사람이 70묘로 하여 조법을 시행하는 것과 같으니 맹자가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 아! 옛 성인이 토지를 나누고 생산을 규정하여 구획하는 일이 온 천하에 없고 오직 해동(海東)의 한 곳에만 있다.[53]

이삼환은 우선 평양의 기전이 점차 모습을 잃어가는 현상을 우려하였다. 다만 한 구역이 온전하게 남아있어서 그곳의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한백겸이 주장한 것처럼 70묘의 크기였다. 이는 결국 은나라 사람이 70묘로 조법을 시행하였다는 『맹자』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까지는 한백겸의 논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이삼환의 평양 기전에 대한 이해 방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백겸의 전(田)자 형태 이해 방식과 다르게 은나라의 토지제도를 정(井)자 형태로 이해하였다.[54] 다만 기전이 은나라의 토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井)자 형태를 이루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맹자』에서 "교외(郊外)는 1/9세를 적용하고, 국중(國中)은 1/10세를 적용

52) 김문식, 앞의 논문, 1997, 342면.
53) 李森煥, 『少眉山房藏』 권6, 雜著, 「關西紀行」, "然今不但田間一畝路漫滅無跡 其界田三畝路亦不可尋 獨其中一區 以宮前三畝路 猶幸不改 其兩傍又九畝大路 故得其限界 試以畝法槩之 恰爲七十而無餘欠 與殷人七十而助之訓合 孟子豈欺我哉 噫 古聖人分田制産 所自區畫者 擧天下無存 而獨在海東一域"
54) 李森煥, 『少眉山房藏』 권6, 雜著, 「關西紀行」.

하라."는[55] 구절에 착안하여 평양의 기전은 성내에 있으므로 정(井)자로 구분하지 않고 1/10세를 납부하게 하였다고 보았다.[56] 결과적으로 이삼환 역시 은나라 토지제도가 정(井)자 형태였다는 본인만의 기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것이었다.

이상 이익·서명응·이삼환의 논의를 요약해 보자면 각각의 토지 제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전에 대한 기존의 인식, 대체로 한백겸의 해석을 부분적으로 부정하고 나름의 제도적인 객관성을 찾아내고자 시도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차이가 기존 기전이 갖는 이상적 성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각자의 논의는 더욱 정확한 이상적 정전의 모습을 찾기 위한 탐구 과정이었고, 기전이 갖는 이상향이라는 특징을 심화시키는 일이었다.

4. 箕子井田에 관한 부정론의 제기

평양의 기전은 다수 학자들에 의해 구체성을 부여받았고, 중화의 이상적 제도로 그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런데 기전이 결국 실재하지 않는 허상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곧 기전이 다양한 논의를 기반으로 현상적, 이상적 성격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전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다시 허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논점이었다.

기전에 관한 의문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앞서서 본 것처럼 김시양은 정전의 유적을 불신하며 기자가 정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유적이 보존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기자가 만들었다는 내용은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며 기전 자체를 부정하였다.[57] 남구만(南九萬, 1629-1711) 역시 기전을 직접 살펴보며 한백겸이 주장한 전(田) 자 형태의

55) 『孟子』, 「滕文公章句」 上.
56) 李森煥, 『少眉山房藏』 권6, 雜著, 「關西紀行」.
57) 姜再恒, 『立齋遺稿』 권13, 跋, 「題箕田圖後」.

해석은 틀렸다고 하면서, 동시에 기자 시대의 경계가 현재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마찬가지로 기전의 존재를 부인하였다.[58]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소수였다. 오히려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이 여러 학자들에게 재차 언급되면서 기전은 기자가 만들어낸 은나라의 유제이며, 고대의 이상적 제도라는 인식을 쉽게 바꾸지는 못하였다.

19세기 무렵부터는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였던 기전 불신론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정약용의 주장이다.[59] 그는 정전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전 논의에 관한 추이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한백겸의 은·주대의 전제를 구분하는 의견과 기전의 형태를 설명한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생각해 보건대, 유신 한백겸이 은·주대의 자[尺]와 치[寸]의 차이를 고증하여 그 구획을 계산하고 마침내 정전설을 지어 은의 제도와 주의 제도가 같지 않음을 밝혔다. 그러나 은의 제도와 주의 제도가 같지 않다는데 나는 일찍부터 의심스러웠다. 진실로 구혁을 파서 정전을 구획하는 일은 천하의 큰 역사인데 하나라 사람은 5×5로 개방하고, 은나라에서는 그 구혁을 메꾸어서 7×7의 정전으로 고쳤으며, 은나라가 7×7로 개방한 것을 주나라 사람은 [다시] 그 구혁을 메워 다시 10×10의 정전으로 고쳤으니 이것이 도리인가? (…) 100묘는 개방할 수 있으나【10×10=100은 개방할 수 있음】 70묘는 개방할 수 없으니【8×8=64는 개방하면 6이 남음】 자와 치의 길이가 논쟁할 것이 못 된다. 하물며 정전은 본래 9구역인데 지금 "4전·8구로 8×8=64를 하나의 큰 경계로 한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정전하는 법이겠는가? [또한] 한 구역이 70묘라면 정방형의 형태가 될 수 없는데 지금 70묘가 모두 정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울 만하다. 『고려사』와 왕기·동월의 말에 모두 그 자취가 외성 안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64구의 전지는 외성의 남문 밖에 있으니 [또한] 의심스럽다.[60]

---

58) 南九萬, 『藥泉集』 권29, 雜著, 「東史辨證」.

59) 정약용의 기전 부정설은 엄기석, 앞의 논문, 2016, 96-98면 재인용.

60) 丁若鏞, 『經世遺表』 권6, 田制考 6, 「邦田議」, "臣謹案 儒臣韓百謙考殷周尺寸之差 計其區畫 遂作井田說 以明殷制周制之不同 然殷制周制之不同 臣 嘗疑之 誠以濬溝洫 畫井田 天下之巨役也 夏人五五開方 而殷人塡其溝洫 改之爲七七之井 殷人七七開方 而周人塡其溝洫 又改爲十十之井 有是理乎 … 然百畝可以開方【十十 百也 可開方】 七十畝不可以開方【八八 六十四也 開方賸者六】 尺寸長短 不足爭也 況井田本是九區 今乃曰四田八區 八八六十四 爲一大限 此豈井田之法乎 一區七十畝 則其形不能正方 今乃云 七十畝 皆正正方方 甚

정약용이 한백겸의 기전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내용은 3가지이다. ① 먼저 주희가 말한 것과 같이 한백겸의 주장대로 하·은·주 왕조가 변화할 때마다 구혁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민력이 크게 소모되어 왕망(王莽)의 정치만도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② 다음은 기전 한 구역의 넓이인 70묘는 100묘와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게 정방형으로 구혁의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고려사』와 중국 사신의 기록에서는 기전의 자취가 외성 안에 있다고 하였는데, 한백겸은 외성 남문 밖에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관찰한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내용이다.

결국 정약용은 위의 세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한백겸의 기전설이 부정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렇다고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약용이 내린 결론은 기전의 실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평양에 도읍하였다는 주장을 나는 일찍이 믿지 않았다. 예전 당나라 때에 이적이 평양에 진을 치고, 유인원(劉仁願)이 남원에 진을 쳤는데 모두 둔전(屯田)을 경영하였다. 그러므로 두 부에 모두 정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둔전이었다. 둔전은 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혁의 제도가 마치 정전과 흡사하다.[61]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약용은 기자가 평양에 도읍하였다는 것부터 불신하였다.[62] 그리고 기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나라 군이 평양에 설치한 둔전(屯田)의 자취라고 보는 게 옳다고 여겼다.

可疑也 高麗史及王圻董越之說 皆云 其跡在外城之內 今此六十四區之田 乃在外城南門之外 又可疑也”

61) 丁若鏞, 『與猶堂全書補遺』, 餖飣錄, 「韓久菴井田說」, “雖然 箕子都平壤之說 余嘗未信 昔在唐時 李勣鎭平壤 劉仁願鎭南原 皆爲屯田 故二府皆有井田 其實屯田也 屯田用陣法 故溝洫有制 恰似井田也”

62) 정약용은 유배 이후 『주역』의 재해석을 근거로 기자의 동래 및 평양 도읍에 대해 그동안 가져왔던 불신을 거두었다. 다만 기자정전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기자가 정전을 만들었다면 평양성 남쪽의 지엽적인 구역에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문하였다. 다만 평양의 격자 유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정약용은 이는 기자가 고법 하에 만들었던 평양성의 자취라고 보았다. 즉 기자가 고법을 토대로 왕궁을 중심으로 전조후시와 좌우 6향으로 구성되는 ‘정’자의 도성 형태가 평양성에 조성하였다는 주장이었다. 윤석호, 「丁若鏞의 箕子 認識—古法 탐구와의 連動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021, 253-259면 참고.

실제로 둔전은 진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네모반듯한 모양의 토지 구획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은 정전의 흔적이라고 착각하였다는 게 정약용의 기전에 대한 이해 방식이었다. 기전에 대한 불신은 정약용뿐만 아니었다. 19세기 중반의 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1860)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 그러나 기자의 도성에 대하여 옛날 사람들의 설명이 서로 다른데, 이는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 (…) 내가 일찍이 기전을 의심한 것을 다음과 같다. 서명응의 『기자외기』를 살펴보면 평양부 기자묘는 숭인전이라고 하는데 전각 안에는 궤가 있다. 궤 안에는 붓 한필이 있는데 지금 제도의 명칭대로 '기자가 사용한 붓'이라고 한다. 기자가 있을 때에 어찌 지금 제도의 붓 같은 것이 있겠는가? 또한 요즘 점집에서 점치는 동전을 조선통보(朝鮮通寶)라고 하는데 세속에서는 기자 때에 주조한 것이라고 한다. 기자 대에 어찌 해서로 새긴 동전이 있겠는가? 이로 미루어보건대 기자정전은 아마 이와 같은 부류인 것 같다. 또한 기자가 봉토를 받아 도읍한 곳은 [중국의] 영평부가 사실이며 증명되었으니 한 마디마다 의심이 생기는 까닭이다.[63]

이규경은 당시 기자가 사용한 붓이라든지 기자가 주조한 동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기전 역시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다. 특히 기자가 봉토로 받은 곳은 중국의 영평부(永平府)라는 점에서 기자의 평양 동래설부터 반박하였다. 기전의 존재를 애초에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 역시도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기전에 대한 한백겸・서명응・박지원 등의 논의를 수록하고 약간의 의견을 덧붙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기전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내용은 영남의 경주부에도 정전이 있다고 하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평양의 정전이 기자가 남겼다고 하는 점은 확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64] 이외에 홍경모(洪敬謨, 1774-1851) 역시 평양에 있는 정전에 대하여 맹자 시대에 이미 정전 제도

---

6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箕田遺制辨證說」, "… 然箕子之都 古人辨說互異 則斯令後人起疑也 … 愚嘗以箕田爲疑者 按徐命膺 箕子外紀 平壤府箕子廟曰崇仁殿 殿中有櫃 櫃內置一筆 如今制 名曰箕子所用之筆 箕子之世 豈有如今制之筆乎 且今世卜家所攤錢 有朝鮮通寶 俗以爲箕子時所鑄 箕子時豈有楷書所寫之錢乎 推此以斷箕子井田 安知非類此歟 且箕子之受封而爲都者 以永平府爲據而證之 則可謂簡簡生疑故也 …"

64) 徐有榘, 『林園經濟志』 本利志, 「箕子井田」.

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기자가 실제로 구획한 정전이라면 세월의 흐름으로 보아 선명하게 남아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평양의 정전은 기자의 정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65]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전불신론'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삼대의 제도에 관한 이해가 이전 시기보다 구체화 됨에 따라 은대 유제라고 하는 기전의 제도적인 내용부터 의심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약용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자신만의 확고한 정(井)자 형태의 정전제 이해 방식에서 오는 기전과의 제도적 괴리가 기전을 부정하는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볼 수 있다.[66] 하지만 그보다도 기전의 부정을 불러온 근본적 원인은 기자라는 역사적 존재와 기자의 동래(東來)라는 사건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기존의 기자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서[67] 기자의 동래라는 역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전개하였던 기전의 현상화 단계부터 무너지게 된 것이다. 결국 다음 단계였던 이상화 단계는 애초에 부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 내내 지속되었던 기전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부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현상의 구체적인 이해에 따른 반작용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기자 존숭 의식의 쇠퇴와 연결되어 있었다. 기전 논의는 결국 기자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자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면 토지제도로서 현상적인 기전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결국 기자에 대한 숭상 인식이 약화 됨에 따라 기전 논의 역시 축소되거나 부정되었다. 19세기 말부터는 개항과 외국 세력의 진출로 기전의 형태마저도 파괴되기 시작하였다.[68] 또한 기자라는 성인에 대한 인식 역시 점차 민족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기자의 자리는 점차 단군으로 대체되어 갔다. 그렇게 중화의 본고장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자랑하였던 삼대의 유제는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65) 洪敬謨, 『冠巖存藁』 2책, 「箕子宮遺墟記」.
66) 엄기석, 앞의 논문, 2016, 98-99면.
67) 박광용, 앞의 논문, 1980, 281-282면.
68) 평양 외성에 있던 기전의 파괴 과정은 다음 논문을 참고 할 수 있다. 박준형, 「1899년 평양개시 이후 평양성 외성 공간의 재편 과정」, 『한국학연구』 3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a;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의 평양 진출과 평양성 내에서의 '잡거' 문제」, 『비교한국학』 23-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6b.

5. 맺음말

조선후기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기전은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가? 성리학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조선 입장에서 삼대는 지향해야 하는 이상향이었다. 그리고 과거 삼대에 시행된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는 정전제 역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평양에 바둑판처럼 일정하게 구분되어 있던 기전은 그 실체가 무엇이었던 간에 조선시대 지식인의 이상을 자극시켜 주기에 충분하였다.

실제 평양 외성의 기전은 고대 왕조의 도시 구획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점차 사라지고 정전일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기억이 기전의 인식을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7세기 초반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이 일종의 트리거(trigger)가 되어 허상은 현상으로 변화하였다. 관념 속 이상의 실체를 갈구하던 당시 조선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실재하는 기자의 유제가 되었다. 이후 새로운 중화의 질서를 찾아야 했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기전은 기자가 만든 정전으로, 이상향으로 더욱 진화하였다. 기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기존 지배적 논지였던 한백겸의 설명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전의 이상적 성격마저 부인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대의 이상이라는 측면을 강화 시키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기자에 대한 의식이 흐트러지고, 기전의 이해가 상충되면서 이상향이었던 기전은 다시 허상의 영역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눈앞에 보이던 기전의 구획마저 차츰 옅어지고, 기전의 기억도 사라지게 되었다.

기전은 허상이었으나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의식 세계를 현상화 시키고, 이상을 품은 문명의 당위성을 보여준 존재였다. 기전 논의의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점은 기전이라는 논의의 심화가 지향의 구체화를 가져왔고, 기전에 대한 기억의 감퇴는 이상향에 대한 희미해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의 추구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기전은 조선후기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이상향에 대한 '기억의 촉매제'였다.

〈부표〉 箕子井田 논의를 수록한 사찬 자료 목록

연번	저자	저자생몰	전거	세부전거	비고
1	卞季良	1369-1430	春亭集	권12, 箕子廟碑銘	
2	金時習	1435-1493	梅月堂集	권19, 箕子贊	
3	尹斗壽	1533-1601	箕子志	古跡	초간본기준
4			平壤志	권2, 土田	
5				권5, 雜志	
6	李珥	1536-1584	栗谷全書	권14, 雜著, 箕子實記	
7	崔岦	1539-1612	簡易集	권9, 稀年錄, 洪範學記	
8	許筬	1548-1612	岳麓集	권2, 箕田圖說後語	
9	柳根	1549-1627	西坰集	권6, 箕田圖說跋	
10	韓百謙	1552-1615	久菴遺稿	상, 箕田遺制說	
11				상, 箕田圖	
12	李睟光	1563-1628	芝峯類說	권2, 地理部, 田	
13	鄭經世	1563-1633	愚伏集	別集 권3, 經筵日記	
14	張維	1587-1638	谿谷集	谿谷漫筆 권2	
15	宋時烈	1607-1689	宋子大全	부록 권17, 語錄 4, 崔愼錄[上]	
16	尹鑴	1617-1680	白湖全書	권27, 雜著, 漫筆[下]	
17	柳馨遠	1622-1673	磻溪隨錄	권5, 田制攷說 上	
18	南九萬	1629-1711	藥泉集	권29, 雜著, 東史辨證	
19	李頤命	1658-1722	疎齋集	권12, 雜著, 漫錄	
20	李萬敷	1664-1732	息山集	권4, 地行錄 10, 東都雜錄	
21	尹游	1674-1737	平壤續誌	권1, 土田	
22	李瀷	1681-1763	星湖全集	권56, 書韓久庵箕田圖說	

연번	저자	저자생몰	전거	세부전거	비고
23	姜再恒	1689-1756	立齋遺稿	권13, 跋, 題箕田圖後	
24				권16, 議, 井田	
25	申景濬	1712-1781	旅菴全書	권4, 疆界考, 後朝鮮國	
26	安鼎福	1712-1791	東史綱目	부록 상권상, 平壤井田	
27			順菴集	권19, 井田說	
28	徐命膺	1716-1787	保晩齋集	권9, 雜著, 井田說	
29				권11, 碑, 箕子井田紀蹟碑	
30	李森煥	1729-1813	少眉山房藏	권6, 雜著, 關西紀行	
31	洪大容	1731-1783	湛軒書	외집 권7, 燕記, 吳彭問答	
32				외집 권7, 燕記, 蔣周問答	
33	朴趾源	1737-1805	燕巖集	권16, 課農小抄, 田制	
34	李德懋	1741-1793	靑莊館全書	권19, 雅亭遺稿 11, 金直齋	
35	李家煥	1742-1801	錦帶詩文抄	下, 箕田攷序	
36			箕田攷	-	
37	成海應	1760-1839	硏經齋全集	외집 권63, 古蹟類 箕田說	
38	丁若鏞	1762-1836	經世遺表	권6, 田制考 6, 邦田議	
39			餌飩錄	韓久菴井田說	
40	徐有榘	1764-1845	林園經濟志	本利志, 箕子井田	
41	洪敬謨	1774-1851	冠巖全書	2책, 箕子宮遺墟記	
42				2책, 箕子田記	
43	柳致明	1777-1861	定齋集	속집 권8, 雜著, 關西遊錄	
44	李圭景	1788-1856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箕田遺制辨證說	

연번	저자	저자생몰	전거	세부전거	비고
45	朴珪壽	1807-1877	瓛齋集	권4, 雜著, 答金德叟論箕田存疑	
46	李承熙	1837-1916	韓溪遺稿	권3, 七六七	

▮ 참고문헌

자료
『新增東國輿地勝覽』
姜再恒, 『立齋遺稿』
朴趾源, 『燕巖集』
徐命膺, 『保晩齋叢書』
徐有榘, 『林園經濟志』
成海應, 『研經齋全集』
安鼎福, 『順菴集』
柳根, 『西坰集』
柳馨遠, 『磻溪隧錄』
尹斗壽, 『箕子志』
尹斗壽, 『平壤志』
尹游, 『平壤續誌』
李家煥, 『箕田攷』
李家煥, 『錦帶詩文抄』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森煥, 『少眉山房藏』
李睟光, 『芝峯類說』
李頤命, 『疎齋集』
李瀷, 『星湖全集』
丁若鏞, 『與猶堂全書』
崔岦, 『簡易集』
韓百謙, 『久菴遺稿』
許筬, 『岳麓集』
洪敬謨, 『冠巖存藁』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한국고대사 자료집 : 고조선·부여 편 4-문집(상)』, 동북아역사재단, 2021.
_____, 『한국고대사 자료집 : 고조선·부여 편 4-문집(후)』, 동북아역사재단, 2021.

연구자료
김경태, 「임진왜란 시기 朝鮮·明관계와 箕子인식의 양상」, 『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2016.
김문식, 「18세기 후반 徐命膺의 箕子 認識」, 『우송조동걸선생 정년기념논총 한국사학사연구』 I, 나남출판, 1997.
_____, 「18세기 후반 順菴 安鼎福의 箕子 인식」, 『한국실학연구』 2, 한국실학학회, 2000.
_____, 「星湖 李瀷의 箕子 인식」, 『퇴계학과 한국문화』 3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3.
김영준, 「조선시대 箕子談論과 社會改革論 관련 양상」, 부산대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김창수, 「조선후기 기자의 위상과 평양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89, 2022.
나종현, 「조선시대 '중화' 인식 연구의 성과와 제언」, 『한국학연구』 6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3.
박광용,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高麗부터 韓末까지의 史書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 서울대 국사학과, 1980.
배우성, 『중화 : 사라진 문명의 기준』, 푸른역사, 2024.
변은미, 「箕田 논의에 대한 고찰」, 『고전과 해석』 41,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3.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公田制論과 그 이념적 지향」,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신주엽, 「17-18세기 箕子 유적의 정비와 기자 인식」, 『대구사학』 148, 대구사학회, 2022.
신항수, 『李瀷(1681-1763)의 經·史解釋과 現實認識硏究』,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엄기석, 「星湖學派의 箕子井田 인식」, 『성호학보』 18, 성호학회, 2016.
오수창, 『조선시대 정치, 틀과 사람들』, 한림대, 2010.
윤석호, 「丁若鏞의 箕子 認識—古法 탐구와의 連動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021.
이군선, 「洪敬謨가 본 古都平壤과 그 遺蹟」, 『동양한문학연구』 39, 동양한문학학회, 2014.
이남옥, 「조선시대 箕子 추숭의 과정과 그 의미」, 『한국서원학보』 16, 한국서원학회, 2023.
_____, 「『箕田攷』와 조선후기 箕子 遺田에 대한 논의」, 『조선시대사학보』 109, 조선시대사학회, 2024.
이명제, 「조선후기 기자의 위상 변화와 조·청 외교에서의 활용 양상」, 『국학연구』 51, 한국국학진흥원, 2023.
조성산, 「조선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역사학보』 202, 역사학회, 2009.
조원진,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81, 동북아역사재단, 2023.
_____, 「조선시대 지리지에 나타난 기자조선 인식」, 『동양학』 9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24.
허태용,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변동과 조선왕조의 정치·사상적 대응」, 『역사학보』 221, 역사학회, 2014.

【Abstract】

In Search of the Ideal in Illusion : Changing perceptions of the 'Gija Jeongjeon' in Pyongy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Um, Ki-suc*

This study examines discussions among late-Joseon intellectuals regarding the so-called "Gija Jeongjeon(箕子井田)," a system of idealized agricultural fields purportedly located in Pyongyang during the Joseon period. From the early Joseon era onward, Jeongjeon in Pyongyang was revered as an ancient ideal land system, yet lacked concrete evidence, existing primarily as a speculative, illusory construct. However, with increasing reverence toward Gija in the 16th century, the system gradually gained substance and definition. The introduction of Han Baek-gyeom's theories—the "Gijeon-yuje-seol (箕田遺制說, theory of remaining institutions of Gija's fields)" and "Gijeondo (箕田圖, maps of Gija's fields)"—further transformed Jeongjeon into a tangible historical institution. Consequently, Jeongjeon became increasingly detailed as a land division established by Gija, and Han Baek-gyeom's theories gained prominence. Moreover, following the Ming-Qing transition, debates over Joseon's succession of the Sinocentric civilization intensified, elevating Jeongjeon from merely an ancient institution to a symbolic ideal representing the cultural legacy of Sinocentric civilization. Although deeper historical inquiry in later periods led to partial rejection of Han Baek-gyeom's assertions, the idealized concept of Jeongjeon itself remained largely intact. Yet, around the 19th century, as reverence toward Gija waned and evidential scholarship deepened, cases increasingly arose questioning Jeongjeon's existence altogether. Thus, late-Joseon discussions about Jeongjeon reflected contemporary perceptions and scholarly trends, making it a lens through which to view the intellectual currents of the era.

Keywords: The well-field of Gija, Gijeon, The well-field, Gija, Pyongyang, Sinocentrism

접수일: 2025.03.31. || 심사일: 2025.05.14. || 게재확정일: 2025.05.14.

* Assistant professor, Gongju National Univ of Education.